

【동경 올림픽에서 재도전】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저번주 토요일 오카야마에서 합숙중인 배구 여자 필리핀 대표팀과 오카야마 씨가루즈와의 공개 시합을 관전했습니다.

대표팀 여러분이 사전에 접견으로 방문했을때는 귀엽고 명랑해 평소의 접견과는 달리 화기애애한 접견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시합을 하는 순간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힘있는 스파이크를 던졌습니다.

오카야마 씨가루즈의 카와모토 감독에 의하면 필리핀 대표팀은 발전도중임에도 불구하고 레벨이 높고 선수 한사람 한사람이 연습에 열심이므로 5 ~ 6년 후에는 아주 강한 팀이 될지도 모르겠다.

동경올림픽에 아시아 범위에서는 일본이 개최국, 중국이 세계 톱 레벨의 별도 범위일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팀의 입장에서는 출장이 유리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필리핀이 그 자리를 노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시합 당일에는 카에타노 필리핀 배구 조직위원회 위원장(필리핀 외무대신)과 부인( 타기그 시장※)도 함께 내장해 주셔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올림픽 출장을 노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꼭 오카야마에 사전 캠프를 하시라고 여쭙보았더니 좋은 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접견과 공개시합을 통해서 필리핀팀 전체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꼭 씨가루즈에서도 대표선수가 선출되어 동경 올림픽 무대에서의 대전이 실현될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타기그 시는 마닐라 공항에서의 교통이 편리한 인구 약 80 만인의 성장도시로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계 기업의 진출이 많음.